

전주정원문화센터, 정원문화 대중화 선도

중화산동 중산공원 위치... 실내외 전면 개방 · 겨울 빛정원 · 포토존 조성, 8~14일 국화분재 전시회 마련

전주정원문화센터가 정원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시민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힐링을 제공하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문을 연 전주정원문화센터를 통해 자연 치유와 휴식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등 시민들이 정원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완산구 중화산동 중산공원에 위치한 전주정원문화센터는 △아열대식물원 △정원도서관 △식물병원 △정원용품 전시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곳을 찾는 어린이 등 시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정원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센터 실내외 야외 모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되고 있다.

특히 센터는 매달 정원해설 프로그램을 비롯해, 정원 조성과 유지관리, 반려식물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일상 속 힐링 공간이자 정원문화 확산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센터는 시민들이 정원문화를 더욱 가까이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함께 만든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도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화분재와 베란다정원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다양한 작품들과



이끼테라리움, 수석 작품 등 정원의 다양한 소재도 함께 전시 예정이다. 센터는 이번 전시회 외에도 다가오는 겨울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야외 빛정원을 운영하고, 건물 외벽에는 미니 포토존을 설치해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정원문화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도심 속에서 정원을 즐기며 정원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전주정원문화센터가 시민들의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중심 공간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힐링과 정원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직원, 행안부장관상 수상

이상훈 팀장, '수령장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공로 인정

'수령장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 직원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5일 공단에 따르면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공단 복합시설운영부 소속 이상훈(45)팀장이 행안부장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안전인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안전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상훈 팀장은 '수령장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로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그는 2020년 덕진수령장에서 근무할 당시 공단 직원들과 함께 '수령장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수령장 안전관리를 인력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기계 장치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는 취지로 공단 직원들이 의기투합한 것이다.

13년간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며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수령장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그 이듬해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탑재로 업그레이드됐으며 '에이아이 풀 라이프사이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이 시스템은 수령장 전체를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동작 감시 카메라'를 통해 이용객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불속에서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는 이용객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준다.

안전관리자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사고 구역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해 인명구조 활동을 벌일 수 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완산수령장과 덕진수령장, 도내기생 국민체육센터, 라온 체육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최근 새로 생긴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내년에 도입된다.

수령장을 운영하는 타지역 공공기관들의 벤치마킹도 잇따르고 있다.

공단은 수령장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만큼 기술이전을 통한 시스템 보급을 추진 중이다.

이상훈 팀장은 "오늘 받은 이 상은 저만의 것이 아닌 함께 시스템 개발에 애쓰고 땀 흘린 공단 직원들 모두의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독일, 한(韓)문화 글로벌 홍보 거점 마련 '맞손'

시·시의회 관계자 -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간담회 개최... 향후 적극적 교류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약속

전주시가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손잡고 전주한지 등 한문화의 글로벌 홍보 거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송영진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과 이상국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시 대표단이 10월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한문화 홍보를 위해 독일을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전주시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2024 독일 한(韓)문화 홍보'의 첫 단추로, 대표단은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이외에도 뮌헨과 프랑크푸르트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베를린의 유네스코 역사지구 등을 방문하고 한문화사업 관련 실무 협력체계를 논의했다. 특히 전주시 대표단은 방문 기간 중 고경석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를 예방하고, '2024 독일 한문화주간 행사'에서 '국제 한지 특별전'을 지원한 주프랑크푸르트 대한



전주시는 송영진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과 이상국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전주시 대표단이 지난날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한문화 홍보를 위해 독일을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민국 총영사관의 협조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또 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협력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2024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의 일환

으로 현재 독일 뮌헨 오대륙 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국제 한지 특별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김혜미자색지장과 박동삼 한지조형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시와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문화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2025년 한지 전시 추진 △독일 내 한식당에 대한 인증 및 한지메뉴판 지원 등 향후 독일 내 한지 홍보 및 한문화 해외거점 마련을 위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주시 대표단은 또 베를린에서는 전주 출신의 한식당 대표와 청년 셰프가 운영하는 한식당을 차례로 방문하고, 현지에서 활동 중인 유학생 인플루언서와 독일 내 K-컬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양국간 문화교류 활성화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전주한지의 글로벌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독일 지역의 국가유산 복원 및 보존, 관리, 우수 사례를 검토해 후백제 및 전주 부성 역사복원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육기 기자

완산소방서 '2024년 실전형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

유해화학물질 탱크로리 · 대형버스의 교통사고 상황 가정해 진행

전주완산소방서는 5일 완산생활체육공원에서 '2024년 실전형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상황에 따른 임무수행 중심으로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훈련은 완산구 중인동 완산생활체육공원에서 유해화학물질 탱크로리와 대형버스의 교통사고 상황을 가정해

전주완산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총 8개 기관 및 단체에서 130여명의 인원과 30여대의 장비가 동원돼 진행됐다. 훈련 진행은 △1단계 재난발생 초기 대응활동 △2단계 선차대 도착, 대응단계 발령 및 대응활동 △3단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지원기관 활동 △4단계 복합재난 발생 및 대응활동 △5단계 지휘권 이양 및 복구활동 등 순으로 진행됐다.

박경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재난대응능력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의회, 의정활동 전문지식 습득 연찬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전략 · 예결산 심의 강의 등 진행

전주시의회는 5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등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전남 여수 일원에서 열린 이번 연찬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주요전략과 지방의원 이야기 할 예결산 심의 강의 등이 진행됐다.

또 의원들의 대시민 소통 채널 확대를 위한 MBTI 커뮤니케이션 강의와 의원 상호간 협력을 통한 행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정보 공유 등도 이뤄졌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연중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앞두고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전주시의회는 5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등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얻은 지식과 공유 정보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감사와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색깔있는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HU**

百人百色

백 인 백 색

축! 전주매일 창간

호원대학교
HOWON UNIVERSITY

내인생의
COLOR를 찾는 곳!

입/학/상/담
1588-9779